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요르단

Hashemite Kingdom of Jordan

2021년3월11일 | 책임조사역(G3) 박지현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89천 km ² 	인구 1,021만명 (2020년) 	정치체제 입헌군주제 	대외정책 친미 노선 
GDP 426억 달러 (2020년) 	1인당GDP 4,174 달러 (2020년) 	통화단위 Jordanian Dinar (JD) 	환율(U\$기준) 0.71 (2020년) 

- 중동 아라비아 반도 서북부에 위치한 요르단은 한반도의 2/5배 규모의 국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시리아, 이라크 및 사우디아라비아와 국경을 접함.
- 요르단은 관광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발달하였으며, 다수의 중동 국가들과 달리 인산업, 탄산칼륨을 제외한 부존자원은 부족함. 2020년 경제는 코로나19 팬더믹에 따른 관광업 부진과 해외근로자 송금 감소 등으로 -5%의 역성장을 시현하였음.
- 요르단은 공식적으로는 입헌군주국이나 실질적으로는 압둘라 2세 국왕을 중심으로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한편, 정부의 재정건전화 정책, 주변국으로부터의 난민 유입, 저성장 등에 따른 국민들의 생활고 가중으로 정부에 대한 잠재적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 요르단은 이라크, 시리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등 주변국들의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안보, 경제적 지원 등의 이유로 미국 및 GCC 회원국 등과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음. 다만, 국민의 약 60%가 팔레스타인 출신으로 이스라엘과의 외교적 관계는 다소 복잡함.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2. 7. 26 수교 (북한과는 1974. 6. 30. 수교, 2018. 2월 단교 발표)

주요협정 무역협정('73), 경제·기술협력협정('78), 문화협정('78),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00), 투자증진·보호협정('04), 이종과세방지협약('05), 관광협정('05), 국방협력협정('09), 원자력의평화적이용협력협정('09), 무상원조협정('14), 항공협정('15), 군사비밀정보교환·보호협정('17), 외교관사증면제협정('17)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8	2019	2020	주요품목
수출	520,143	531,208	469,889	자동차, 농약·의약품, 자동차부품
수입	54,620	94,396	83,553	기타석유화학제품, 동제품, 기타금속광물

해외직접투자현황(2020.9월 말 누계, 총 투자기준) 23건, 124,608천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제성장률	2.0	2.1	1.9	2.0	-5.0
소비자물가상승률	-0.6	3.6	4.5	0.7	-0.3
재정수지/GDP	-3.7	-3.6	-4.7	-6.0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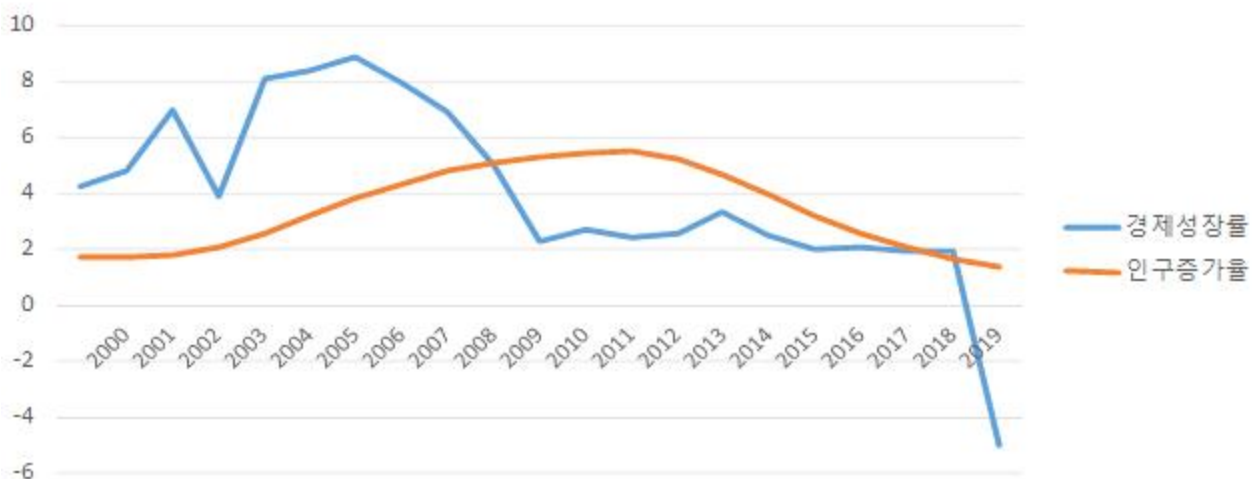
자료: IMF 및 EIU.

외부환경 악화에 따라 2010년 이후 2% 내외의 저성장 시현

- 요르단 경제는 2000년부터 10년 동안 평균 6.5%의 고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10년대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외국인투자 유입 감소*, 에너지 수입 비용 증가, 역내 군사적 갈등에 따른 수출시장 일부 폐쇄, 주변국(시리아·이라크)으로부터의 난민 유입에 따른 노동시장 공급 과잉 등으로 2010~19년 평균 2.4%의 성장률을 기록, 같은 기간 인구증가율(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성과를 보임.

* 외국인투자유입액(백만 달러): 2,678.0(2005~09년 평균) → 1,769.6(2010~14년 평균) → 1,410.7(2015~19년 평균)(자료, UNCTAD)

요르단 경제성장률 및 인구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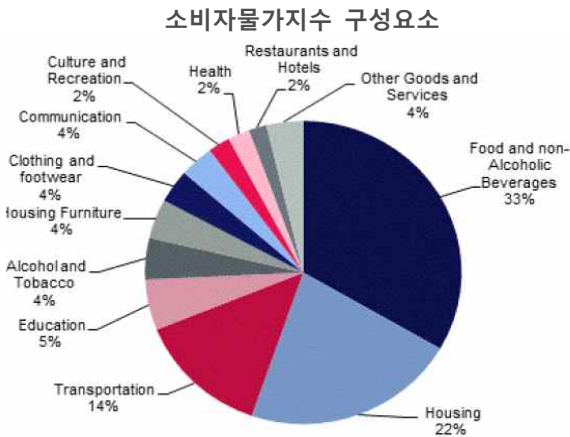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0

관광업의 급격한 위축 및 비거주자 송금 감소 등으로 -5%의 역성장

- 2020년 경제는 코로나19 발발에 따른 관광업 침체 및 국내외 민간소비 감소, 저유가·코로나 여파로 인한 GCC 회원국에 거주하는 해외근로자 송금 감소 등으로 -5%의 역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국내경제

에너지 가격 하락 및 소비 위축으로 2020년 디플레이션 기록



자료: Fitch Solutions

- 요르단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2020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민간소비 위축,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인해 약한 수준의 디플레이션(-0.3%)을 겪은 것으로 추정됨.
- IMF, EIU, Fitch Solutions 등은 민간소비 및 에너지 가격의 점진적인 회복으로 2021년에는 1% 내외 수준의 물가상승을 보인 후 2025년에는 2.5% 내외 수준에서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전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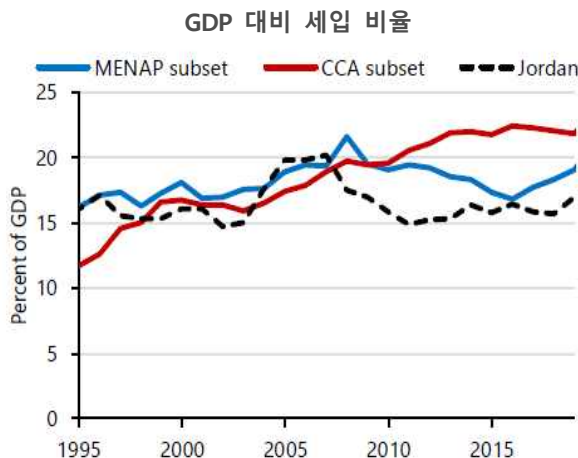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재정수지 적자 일시적 확대

-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12년 -14.3%로 정점*에 도달한 후 정부의 일부 보조금 폐지·삭감, 요금(전기·수도 등) 인상 등의 재정 건전화 노력으로 2017년 -3.6% 수준까지 점차 감소하였으나, 2019년에는 수자원 부문의 손실 확대 등으로 -6% 수준으로 확대되었음.

* 국영 유틸리티 회사들의 순차입필요액(net financing needs)이 재정수지 산정 시 포함되며 전년(-9.8%) 대비 크게 상승

- 2020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세수(관세 등) 감소 및 정부 대응책(관광업 등 일부 업종 관련 세금의 일시적 감면, 보건 지출 확대, 실업자 현금 지급) 시행 등으로 전년(-6.0%) 대비 큰 폭(-9.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나, 2021년부터는 경제 회복, 재정건전화 정책(IMF 확대신용(EFF) 프로그램) 시행 등으로 적자 폭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IMF 전망치(GDP 대비 비율): 2021년 -7.4%, 2022년 -5.8%, 2023년 -5.5% 2024년 -4.4%



자료: IMF.

주) MENAP: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CCA: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중앙정부 재정수지 현황(GDP 대비 비중)

구분	2018	2019 ^e	2020 ^f	2021 [†]
총 수입	25.7	24.3	23.8	24.6
국내수입	22.8	21.8	20.4	22.1
(세수)	(15.5)	(15.3)	(16.0)	(16.7)
해외원조	2.9	2.5	3.5	2.5
총 지출	29.3	29.2	30.5	30.8
경상지출	25.0	25.0	27.2	27.5
(임금)	(4.7)	(4.9)	(4.8)	(5.3)
(이자)	(3.3)	(3.6)	(4.2)	(4.3)
(국방·안보)	(8.1)	(8.1)	(8.8)	(8.6)
자본지출	3.1	3.1	3.1	3.4

자료: IMF.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경 상 수 지	-3,852	-4,393	-2,963	-1,003	-3,531
경상수지/GDP	-9.6	-10.6	-6.9	-2.3	-8.3
상 품 수 지	-9,588	-10,695	-10,302	-8,887	-6,335
상 품 수 출	7,549	7,511	7,750	8,313	7,818
상 품 수 입	17,136	18,206	18,052	17,200	14,153
외 환 보 유 액	13,923	13,423	12,690	13,224	13,189
총 외 채	27,240	30,233	32,158	33,684	36,435
총외채잔액/GDP	68.2	72.9	74.8	75.6	85.5
D.S.R.	20.5	17.8	19.2	24.0	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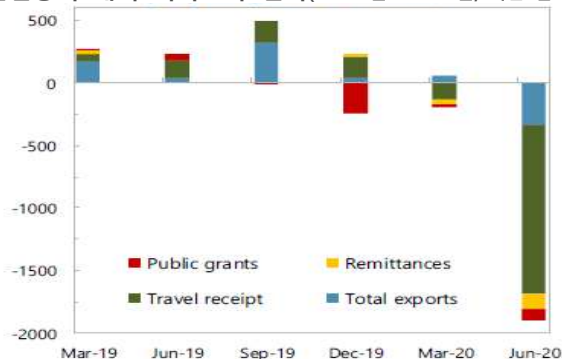
자료: IMF, EIU 및 OECD.

관광업 위축 및 해외근로자 송금 감소로 2020년 경상수지 적자 폭 확대

- 2020년 상품수지는 상품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기 악화에 따른 내구재 수입 감소 및 에너지 국제 가격 하락으로 상품수입이 더 크게 위축되며 적자 폭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나, 코로나19 팬더믹에 따른 주요 외화소득원인 관광업*의 급격한 위축과 해외근로자 송금 감소로 경상수지 적자는 2019년 -10.0억 달러에서 -35.3억 달러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IMF는 2020년 11월 보고서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2020년 관광업은 항공 여객 운송 재개가 늦어져 전년 대비 약 74%가 위축되고, 해외근로자 송금액은 귀국하는 노동자 증가로 약 12% 축소될 것으로 예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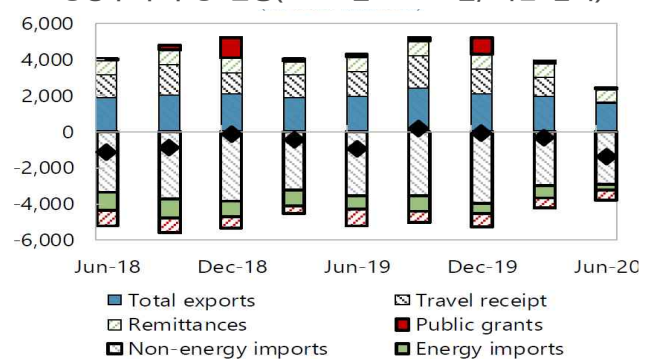
* 2019년 기준 관광업은 직·간접적으로 요르단 GDP의 16%, 고용의 18%, 경상수지소득(Current Account Receipt)의 25%를 차지(자료: 세계여행관광협회)

전년동기 대비 외화소득 변화(2019.3월~2020.6월, 백만 달러)



자료: IMF(원자료: 요르단 중앙은행).

경상수지 구성 현황(2018.6월~2020.6월, 백만 달러)



자료: IMF.

외채상환능력

월평균수입액의 8개월분에 해당하는 충분한 외환보유액 유지

- 2020년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액의 8.2개월분에 해당하는 131.9억 달러로, 경상수지 적자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페그제(달러당 0.71디나르)를 유지하는 데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 요르단 정부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미국, GCC 회원국, IMF 등으로부터 풍부한 원조 및 차관 지원을 받고 있어, 중기적으로도 페그제를 유지하는 데 충분한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지닌 것으로 평가됨.

* EIU는 2021~25년 간 연평균 외환보유액이 월평균수입액의 8.3개월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요르단은 2020년 10월 30일 만기 예정이었던 유로본드(125억 달러) 상환 자금조달 등을 위해 175억 달러 규모의 유로본드*를 2020년 7월 성공적으로 발행하였으며, 발행 당시 모집액의 6.25배의 수요가 있었음.
* 2개의 트런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5년물의 쿠폰금리는 4.95%(5억 달러), 10년물 쿠폰금리는 5.85%(12.5억 달러)임
- 주요 원조공여국들은 중동 지역 내 정치적 안정성 유지 등을 위해 요르단 앞 양허성 차관 및 원조를 지속 지원할 것으로 예상됨. Moody's는 11월 보고서에서 對요르단 양허성 차관액이 2018년 7억 달러에서 2019년 15억 달러, 2020년 20억 달러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함.

주요 외화소득원 감소로 외채 관련 지표는 다소 악화

- 주요 외화소득원(관광수입, 해외근로자송금) 감소로 2020년 말 기준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36.0%(2019년 24.0%)로,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이 307.0%(2019년 191.8%)로 크게 상승하는 등 외채상환능력지표가 악화되었음.
-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인한 대외자금 차입 확대 등으로 총외채는 2021년 GDP의 78.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자금 성격(대부분 양허성 자금) 등을 고려할 때 외채수준이 아직까지는 양호한 수준으로 분석됨.

연도별 외채 규모 예상치

구분	2019	2020 ^f	2021 ^f	2022 ^f	2023 ^f	2024 ^f	2025 ^f
GDP 대비 총 외채 비중(%)	68.0	75.2	78.0	77.5	75.4	72.4	68.7
(공공외채 비중, %)	(35.0)	(41.3)	(45.0)	(45.5)	(44.3)	(42.4)	(3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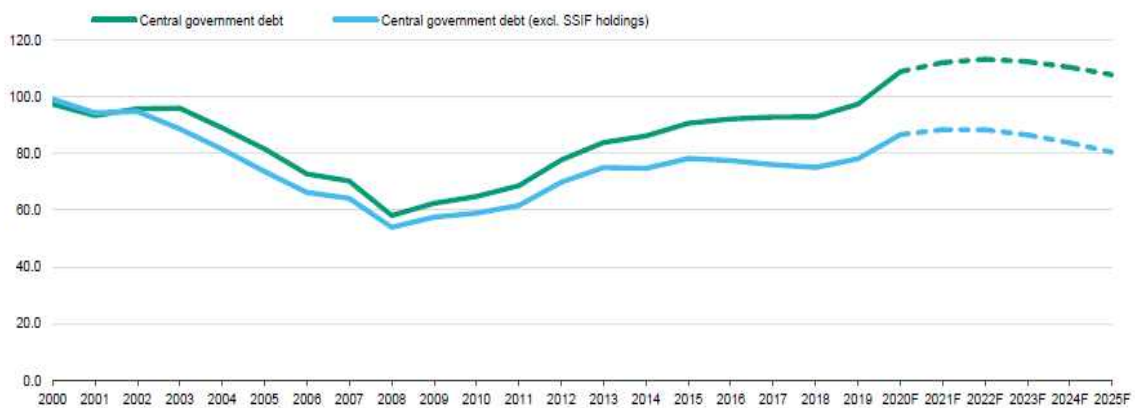
자료: IMF.

공적채무는 2022~23년까지 증가한 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

- Moody's는 요르단의 공적채무가 2020년 GDP의 108.7%에 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21년 GDP의 111.9%, 2022년 113% 수준까지 증가한 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한편, EIU는 예산 부족분 조달을 위해 대외원조자금과 차입(은행·금융시장)을 활용, 공적채무가 2020년 GDP의 114.9% 수준에서 2023년 122.6%로 정점에 도달한 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
- 특히, Moody's는 요르단 사회보장투자기금(Social Security Investment Fund, 이하 SSIF)이 2019년 기준 공적채무의 19.5%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평균 만기가 약 4년으로 비교적 짧음에도 리파이낸싱 리스크는 낮은 것으로 평가함.

외채상환능력

연도별 공적채무 규모 추이 및 전망*(GDP 대비 비율, %)



* 2020~2025년은 추정치

자료: 무디스.

- 한편, IMF는 2020년 11월 보고서에서 요르단의 공적채무 수준은 페그제 유지, 코로나19 팬더믹 종식(금년 하반기 예상), 요르단 정부의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 공여국·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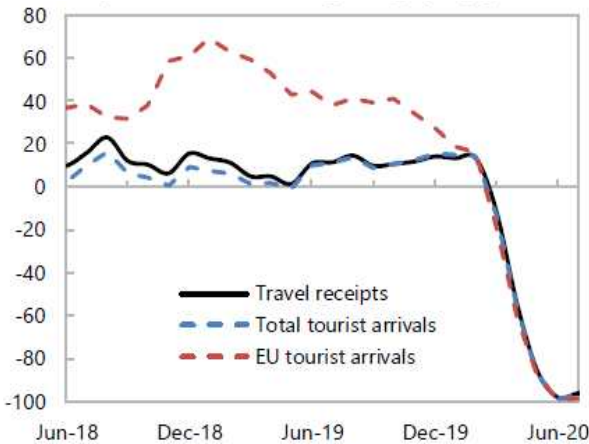
구조적취약성

서비스업이 발달하였으나 관광업과 해외근로자 송금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음

- 요르단은 원유·가스가 풍부한 여타 중동 국가들과 달리 인산염 및 탄산칼륨(potash)을 제외한 부존 자원이 부족하고 제조업 발전 수준도 낮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발달하였음. 특히, 관광업과 해외근로자 송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대외 경기변동과 지정학적 리스크(이라크, 시리아) 등 외부환경에 민감함.

* 2020년 산업별 GDP 구성현황 : 서비스업 65.2%, 제조업 28.3%, 농업 6.5% (자료: EIU)

외국인 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액
(3개월 이동평균,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



자료: IMF(원자료: 요르단 중앙은행 및 통계청)

- 관광업은 2019년 기준 직·간접적으로 GDP의 약 16%, 고용의 18%를 차지(세계여행관광협회)하며, 해외근로자 송금액은 GDP의 5~7%(2020년 5.2%, EIU)를 차지함.
- IMF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유럽으로부터의 관광객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간 이동 제한 등으로 상반기 관광·운송 수입액이 전년동기 대비 56% 급감(GDP의 4% 수준)하였음.
- 한편, 대다수의 해외근로자가 중동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가운데, EIU에 따르면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저유가 사태가 겹쳐 2020년 해외근로자 송금액은 전년(29억 달러) 대비 21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음.
- 한편, 중동 국가들의 자국민 우선 고용정책은 해외 근로자의 근무 여건에 중장기적으로 위험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

성장잠재력

대외개방정책 기조 및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

- 요르단은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내수기반이 약해 대외개방 및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미국(2001년, 발효기준), EFTA(유럽자유무역지대, 2002년), 싱가포르(2005년), 이라크*(2010년), 캐나다(2012년)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외 다수의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음.

* 잠정 중지되었으나 2019년 최근 요르단-이라크 교역이 활성화되어 약 300여개 품목에 대한 면세 혜택 제공 중(자료: 코트라)

** ①18개(요르단 포함) 아랍 국가, Greater Arab Free Trade Area, 1998년 발효, ②EU, Association Agreement, 2002년 발효, ③이집트·튀니지·모로코, Agadir Agreement, 2006년 발효

- 또한, 아카바 경제특구, 자유무역지대 44곳(6개 공영, 38개 민영), 개발구역 12곳을 설립하여 각종 세금(관세·법인세·상품용역세 등) 감면 또는 면세 혜택 등을 제공하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를 마련함.

정책성과

경제개발계획("요르단 2025")를 추진 중이나 목표 대비 성과 저조

- 요르단 정부는 2015년 10개년 경제개발계획인 "요르단 2025"를 수립하였으며 원칙에 따른 운영, 기회 균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경제적 자립을 4대 축으로 설정하고 있음.
- 세부 달성목표로 2025년까지 최고 7%대의 경제성장, 빈곤층 비율 감소('14년 14% → '25년 8%), 실업률 감소('25년 10% 미만 수준), 에너지 자급률 제고('14년 2% → '25년 39%), 여성의 노동참여율 향상(15% → 24%), 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 감소('14년 82.3% → '25년 47.4%) 등을 설정하였으나 2020년 말 기준 성과는 저조함.

IMF의 확대신용공여(EFF)를 통한 구조적 변화 노력에 정진

- 요르단 정부는 IMF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정적·구조적 개혁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음. Fitch에 따르면 2000년 GDP의 100%에 달했던 중앙정부 채무(SSIF 대출 제외)는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2005~16년 중 중앙정부 지출을 GDP의 10% 수준으로 축소)을 통해 GDP의 60% 미만으로 감소하였음.
- IMF는 2020년 3월 요르단에 대한 13억 달러 규모의 확대신용공여(Extended Fund Facility)를 승인 하였으며, 요르단 정부는 4년 간 ①점진적·성장친화적·공정한 재정건전화 정책 시행, ②페그제 유지를 위한 통화·금융 안정성 확보, ③전력·수자원 부문 개혁 가속화, ④일자리 확대 및 포용적 성장을 위한 노동시장, 기업환경, 거버넌스 개혁 촉진에 힘을 것이라고 밝힘.
- 현재 IMF와 요르단 정부는 공적채무(SSIF 소유 정부채권 제외)가 2021~22년 GDP의 90% 수준에 도달한 뒤, 2025년까지 GDP의 80% 미만으로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정균형 달성을 위해 정부는 ①세무행정 개선과 탈세·조세회피 조사, ②투자세 면세 축소, ③재산세 과세체계 재검토, ④소비세 재편성, ⑤비우선순위 지출에 대한 정당성 확보 등의 노력을 이행하기로 함.
- 다만, 저성장 및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생활수준이 낮아지고 정부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여 정부는 현실적으로 재정건전화 정책(공공지출 삭감, 세수 확대, 공공지출 삭감)을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거버넌스 및 거시경제안정 정책 효과성은 비교적 우수한 수준

- Moody's는 요르단의 세계거버넌스지수가 인근국 및 동종 그룹(B그룹) 국가에 비해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낮은 물가 및 금융 시스템 안정성 유지를 위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및 거시건전성 조치(페그제 포함)의 효과성이 우수하다고 평가함.

* 당사 신용등급 평가지표 중 통화·거시경제 정책 효과성 부분을 A(종합등급은 B1)로 부여함.

- 요르단 통화(디나르)는 미 달러에 고정되어 있어, 요르단의 주요 통화정책은 미국의 통화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요르단 중앙은행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맞춰 2020년 3월 정책금리를 4%에서 2.5%로 인하한 바 있음. 그러나 2021년부터 미국의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22년부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 바, 요르단의 정책금리도 미국의 통화정책에 맞춰 중기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요르단은 2019년 기준 세계은행의 세계거버넌스지수에서 공공 서비스의 질, 정치적 중립성, 정부의 정책 수립·이행 능력 등을 평가하는 정부의 효율성 부문에서 0.10점(-2.5~2.5, 높을수록 우수)을, 사익 추구를 위한 공권력 및 특권층의 권한 행사 정도를 측정하는 부패통제*에서는 0.13점을 획득하였음.

* 부패통제 부문은 2016년(0.27점)까지 개선되다가 이후 다시 점차 악화(2017년 0.26, 2018년 0.15)되고 있음. 한편, 2020년 국제투명성 기구의 부패인식지수(순위가 높을수록 투명)에서는 180개국 중 60위(2017년 59위, 2018년 58위, 2019년 60위)를 차지함

정치안정

국왕 중심의 국정 운영으로 정치가 안정되어 있으며 총선 이후 여당의 영향력은 점차 축소

- 요르단은 중동·북아프리카 국가 중 상대적으로 정치적 안정성이 높은 국가로, 형식적으로는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1999년 왕위를 계승한 Abdullah II Bin Al-Hussein(압둘라 2세) 국왕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음.
 - 헌법에 따르면 국왕은 총리뿐 아니라 대법관과 상원의원까지 임명 및 해임할 수 있어 권력이 국왕에 집중된 가운데 2020년 11월 총선(하원의원 선출)에서 친국왕 세력인 무소속 또는 부족 출신 의원들의 의석 증가로 국왕 중심의 정부정책 추진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팔레스타인계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제1야당인 이슬람행동전선(IAF)*은 2020년 총선에서 기존보다 6석 감소한 10석의 의석을 확보하여 의회 내 영향력은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
- * 무슬림형제단의 정치적 기구
- 한편, 2020년 11월 총선 투표율이 29%를 기록, 경제난, 정부의 긴축정책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꾸준히 하락(2013년 57%, 2016년 37%)한 점은 의회의 제한된 역할과 기존 정치 시스템에 대한 유권자들의 회의감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평가됨.

언론 자유 수준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

- 요르단 헌법상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허가 없이 국왕과 왕실에 대한 기사를 쓸 수 없으며, 국가의 평판이나 품위를 훼손시킬 수 있는 기사 작성은 금지되어 있어 정부에 대한 언론의 견제기능이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
- 국경없는기자회의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요르단은 2020년 기준 180개국 중 128위를 차지하는 등 언론의 자유 수준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수준은 아직 낮은 편인 것으로 평가됨.

* 연도별 언론자유지수 순위(180개국 기준) : 2013년 134위 → 2014년 141위 → 2015년 143위 → 2016년 135위 → 2017년 138위 → 2018년 132위 → 2019년 130위

사회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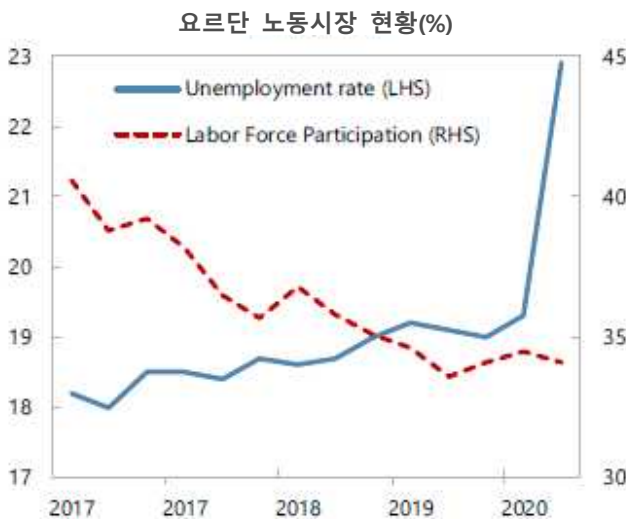
난민 유입·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생활고 가중·실업률 증가로 국민들의 내재적 불만 증가

- 인접국들의 정치적 불안에 따른 대규모 난민 유입, 정부의 긴축 재정정책(연료·전기료 인상, 보조금 감축 등), 코로나19 사태 등이 맞물리면서 요르단 국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실업률*이 2020년 3분기 23.9% (통계청)까지 치솟으면서 사회적 불만이 확대하고 비폭력적 시위와 파업이 증가함. 다만, 급진적인 폭력 시위나 체제변화 사태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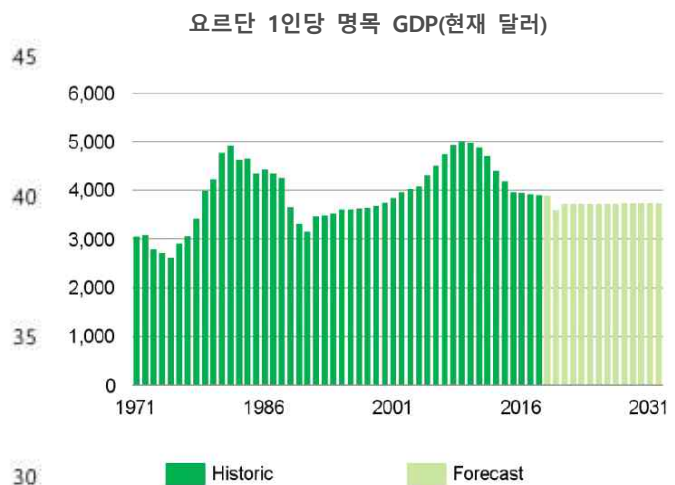
* 젊은층의 실업률은 34%, 여성의 실업률은 50% 이상으로 추정

- 한편, 대규모 난민 유입*은 미숙련 또는 비공식적 부문 노동자들의 일자리 경쟁을 심화시켜 노동시장 수급의 불균형을 확대시키는 한편 요르단 국민들의 공공 인프라·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저해시키고 물 부족 문제도 야기하고 있어 요르단의 주요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음.

* 요르단의 인구 (만 명): 510.3 (2000년), 571.4 (2005년), 718.2 (2010년), 915.9 (2015년), 1020.9 (2020년)(자료 IMF)



자료: IMF



자료: IHS Markit

토착 요르단인과 팔레스타인계 주민 간 갈등 상존

- 인구의 약 30~40%를 차지하고 있는 토착 요르단계 국민들은 군주제와 현 정치 체계를 지지하는 기득권층이나, 팔레스타인 출신 국민은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대다수가 난민 출신으로 정치·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어 이들 간 갈등이 잠재되어 있음.

국제관계

미국과 GCC 회원국들과는 우호적 관계 중,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중립적 자세 필요

- 요르단은 안보 및 경제적 지원 등의 이유로 미국과 GCC 회원국(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음. 미국과 GCC 회원국은 정세가 불안정한 중동 내 평화 유지(이스라엘과의 관계, 주변국들의 내전) 등을 위해, 비교적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요르단에 대해 재정지원을 지속하고 있음.
- 미국 정부는 2018~22년 동안 연간 2020년 요르단 GDP의 3% 수준인 12.8억 달러 이상의 경제·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실제로 미 의회는 그보다 많은 금액인 연간 15.2억 달러를 2018~20년 동안 지원할 것을 승인한 바 있음. 또한, 미국은 대출보증협약을 통해 요르단 정부가 발행한 37.5억 달러(2013~16년 발행)의 유로본드(10억 달러는 2019년 6월 만기도래)에 대해 보증한 바 있음.
- 바이든 정권 또한 전통적·전략적 주요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중동 지역 내 미국의 군사개입 축소를 지속하기 위해 중기적으로 요르단 앞 재정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2018년 카타르를 제외한 GCC 회원국들의 5년간의 25억 달러 규모의 원조 패키지 지원과 별도로 UAE는 2019년 12월 보건·위생 관련 3억 달러의 원조를 지원할 계획을 밝혔으며, 카타르는 2018년 6월 카타르 내 요르단인에게 일자리 1만 개 제공, 요르단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에 5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 밝힌 바 있음.
- EIU는 최근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UAE·바레인·이집트 간의 외교 관계 회복(2021년 1월)이 요르단에도 향후 카타르를 포함한 걸프 지역 내 국가들과의 외교정책을 펼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 반면,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다소 복잡한 상황으로 요르단의 절반 이상의 인구가 팔레스타인 출신이며, 최근 20년 내 요르단으로 이주한 팔레스타인이 많아 국내적으로 반이스라엘 감정이 높으나, (이스라엘이 미국의 주요 우호국이라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물 부족 국가인 요르단이 이스라엘로부터 물 공급을 의존하고 있어 균형있는 외교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주변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높은 편

중동 지역 내 갈등 현황



자료: Fitch Solutions

- 요르단은 인접국들의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지정학적 위험이 높음. 아울러 이라크, 시리아, 팔레스타인으로부터 난민의 대거 유입은 요르단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이라크는 내전(2013~17년) 이후에도 여전히 치안이 불안하며, 시리아는 2011년부터 내전 중임.
- 한편, 이들 국가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인 IS에 가담한 요르단인들이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외채상환태도

2020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편

- 2020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요르단에 대한 원리금 잔액 3.92억 달러(단기 2.02억 달러, 중장기 1.90억 달러) 중 연체는 2,070만 달러(연체율 5.3%)이나, 이는 채무재조정 협상 대상채권(510만 달러) 및 보증(1,560만 달러) 건에 대한 연체로, 기 합의된 채무재조정 대상 외 채무에 대한 연체는 없어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편으로 평가됨.

6건의 파리클럽 채무재조정 건 중 현재 2건에 대해 상환 중

- 요르단은 총 6차례에 걸쳐 외채 리스케줄링을 받았으며, 이 중 1989~97년 중 합의된 리스케줄링 채무액은 전액 상환하였고 1999년과 2002년 리스케줄링 채무에 대해서는 현재 연체 없이 상환 중임.
- 파리클럽¹⁾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요르단의 파리클럽 회원국 및 관련 기관(ECA, 원조청) 앞 채무잔액은 총 29.90억 달러이며, 채무잔액의 대부분(29.27억 달러)은 ODA 채무임.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5등급(2021.01)	5등급(2020.01)
Moody's	B1 (2020.11)	B1 (2019.11)
Fitch	BB-(2020.05)	BB-(2019.06)

Fitch사는 2020년 5월 요르단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

- OECD는 2005년부터 요르단에 대하여 5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Fitch는 요르단의 신용등급 전망을 2020년 5월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반면, Moody's는 높은 정부부채 비율, 저성장·실업률 증가에 따른 사회 불안 확대에도 불구하고 IMF EFF 프로그램을 통한 구조개혁 및 재정건전화 정책 시행, 다변화된 대내 금융 조달 능력(양허성 차관, 원조 등) 등을 감안하여 요르단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 중임.

1) 파리클럽은 참고자료로 홈페이지에 매년 말 기준 채무국별 파리클럽 회원국 앞 채무 잔액을 게시하고 있음.

- 2020년 요르단 경제는 관광업 침체, 민간소비 위축, 해외근로자 송금 감소 등으로 -5.0%의 역성장을 기록하고,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각각 -9.1% 및 -8.3%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한편, 에너지 수입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요르단은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왕 중심의 국정 운영으로 정치가 안정되어 있으며, 2020년 11월 총선(하원선출)에서 제1야당인 이슬람행동전선(IAF)의 의석수가 감소하여 야당의 영향력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인접국들로부터의 대규모 난민 유입, 정부의 긴축 재정정책, 코로나19 사태 등이 맞물리면서 국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실업률이 상승하여 불만이 증가하였음.
- 이라크, 시리아, 이스라엘 등 주변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아 지정학적 위험이 높은 가운데 요르단은 주변국들의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 GCC 회원국들로부터의 안보, 금융지원을 받고 있음. 한편, 요르단 인구의 약 60%가 팔레스타인 출신으로,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다소 복잡함.